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지호	김준성(김영연)	김진하	김기수	하세원	김기복(배수자)	김미희	김병률(이영숙)	김수현	김순석(임영숙)
김진호	김준선(박용숙)	김진희	김현구	서재희	김기복 박부흥(최귀남)	박수훈	이수애(이승배)	박정현	박희진(장동민)
배경철(김순희)	백성연(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화순)	송미선	여운화	유호근(손영화)	윤	조	
윤종운(박진숙)	이영희	이옥남	이철국	이종민	이정희(송백현)	이창교	정기성(심소숙)	채명연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기숙)	최성연(윤자영)	최정규	김지민	최희철(박준숙)	황용국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지호(최지은) 김경자 김기택(배숙자) 김순녀 김순옥(이향옥) 김정자 김현옥 박복래 배정환(김순화)
백남일(윤정환) 송미선(양정현) 여운희(윤태선) 윤 숙 윤승만(민옥희) 이송애(박승웅) 이옥남 이필숙 이종민
이태일(송복현) 이향옥(김순옥) 임영숙(김순석) 정경선(심순옥) 채명영 최봉순(서진화) 하세련 바울남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이필레 김경자 김근봉 김병용(이영숙) 김정자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박부웅(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희영(이한철) 손영화(유호근) 염영분(천세력) 윤 숙 윤정자(최성현) 윤정호(유옥자) 이근자
이미자 이옥남 이월숙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채명엽 하세련 황영옥 무 명

 일천번제한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성 김민혁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기자 이미자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옥남 전병구 전영선 전지선 정승현 정옥순
정해지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무 명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1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출애굽기 12장 14절 ~ 28절		
월요일	출애굽기 12장 29절 ~ 36절	목요일	출애굽기 13장 11절 ~ 22절
화요일	출애굽기 12장 37절 ~ 51절	금요일	출애굽기 14장 1절 ~ 14절
수요일	출애굽기 13장 1절 ~ 10절	토요일	출애굽기 14장 15절 ~ 3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송솔기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에 덴 : 최원지 젤 : 이난수	
	박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선교사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움교회, 아름다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할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04. 25.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다니엘 4장 19~27절

설교: 이진우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으로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징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도는 징계에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에게 하신 말씀이 다고 땅 끝까지 미칠 권세를 주셨으나 이제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임을 알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불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만하게 행하기에 교훈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왕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었다면 꿈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의 때를 드시는 것이니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결국 그 죄 값으로 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두십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오히려 그 징계가 복이 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함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동기가 되는 징계는 결국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간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징계로 더욱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가 임할 때 과연

2. 징계를 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다고 돌이켜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왕의 지 때 문에 징계를 내리실 것이므로 징계가 임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충언합니다. 고만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징벌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징 계를 결정하셨다면 취소할 수 없는 단 한 징계를 당하는 자세에 따라 기간이나 강도는 달 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 은 행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후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키가 크고 더욱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더욱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7 - 18

2021. 05. 0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p>담 임 목 사</p> <p>Senior Pastor</p>	<p>이 진 우</p> <p>Yee, Jin Woo</p>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